운영위원회 회의록

<table>
<tr><td colspan="5">프리웰지원주택센터 운영위원회 제4차 정기 회의</td></tr>
<tr><td>일 시</td><td>2022. 12. 15. (목)
15:00 ~ 16:30</td><td>장 소</td><td colspan="2">서울시 종로구 동숭길25, (사)노란들판 3층 회의실2</td></tr>
<tr><td>참석자</td><td colspan="2">총 5명
(김OO, 김OO, 이OO, 임OO, 서OO)</td><td>기 록</td><td>엄OO(간사)</td></tr>
<tr><td>회의내용</td><td colspan="4">
❑ 성원보고
간사가 재적 운영위원 7명 중 4명 대면 참석, 1명 비대면 참석(팀즈 활용), 2명 불참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함.

❑ 개회 선언
운영위원장이 2022년 제4차 프리웰지원주택센터 정기 운영위원회의 개회를 선언함.

❑ 전차회의
일시, 장소, 참석인원, 성원보고, 보고 안건, 심의 안건, 기타 내용을 개략적으로 보고함.

❑ 보고 안건
1. 제1호 2022년 하반기(제4분기) 운영 보고
가. 현황
1) 입주민 현황 및 직원 현황을 보고함.
- 입주민 인원 및 가구수, 단독·쉐어 거주 여부, 권역별 공가 현황 등을 보고함.
- 종사자 정원 23명 중 4명 퇴사. 12월 신규 슈퍼바이저 1명 입사. 권역 내 원활한 입주민 지원을 위하여 인사 이동 진행하였음을 보고함.
2) 위원 질의 및 의견
- 서OO 위원 : 목동권역의 종사자 이동 및 퇴사자가 많은 이유에 대하여 질의함.
- 김OO 위원장 : 프리웰지원주택센터 내 목동권역 입주민의 특성 상 범위가 광범위하고 다양한 지원을 요구함. 익히 알고계시다시피 목동권역 내 여러 이슈들이 있었음. 이에 따라 종사자의 업무가 과중한 면이 있었고, 또 개인의 건강 상의 사유로 퇴사하기도 하였음. 현재 종사자 구인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나. 주요경과
1) 운영 및 주요사항, 입주민 지원 현황, 입주민 관련 주요 사항, 직원 관련
- 서울시 장애인지원주택 운영사업자 간담회 참석, ‘인권옹호적 지원체계 구축 가이드라인’ 의견 제출. 서울시장애인지원주택사업자 선정 방식 변경으로 모집 공고에 따라 준비 및 신청하여 서울시장애인지원주택운영사업자로 선정되었음을 보고함.
- 서울시립영등포장애인복지관 컨소시엄 사업(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사업) 진행, 장애인주치의 제도 연계, 지원주택 네트워크 프로젝트 워크샵 등을 진행함.
</td></tr>
</table>

- 입주민 관련 이슈 중 입주민의 활동지원사 폭행 건은 활동지원사가 금전 보상을 요구함에 따라 입주민의 상황이 여의치않아 법률 지원하고 있음.

2) 위원 질의 및 의견

- 이OO 위원 : 입주민 관련 이슈의 경우 비슷한 사례들이 다수 있음. 일상화된 사례들이 되기도 하였으나 당사자 스스로 적법한 절차, 상황 등을 경험하며 의식과 생각을 확장해나가는 과정들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지적(발달)장애 입주민 활동지원서비스 서울시비 지원의 경우 지원대상 및 방법 등의 개선을 위하여 서울시 복지정책실 장애인자립지원과와의 꾸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음. 지적(발달)장애인 대한 실질적인 지원대책이 강구되어야 하고 일자리 근로지원서비스의 연계. 복지일자리 56시간(전일제) 등이 지원되어야 함.
- 김OO 위원장 : 현재 입주민의 활동지원서비스 추가 지원 신청을 위하여 현황, 필요시간 등을 확인하고 있으며, 취합자료를 바탕으로 서울시와 면담을 진행할 예정임. 입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의 활동지원서비스 지원 대상, 조건에 해당하는지 활동지원서비스 구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함.
- 서OO 위원 : 확인이 필요할 듯 함. 구청 담당자와 논의하여 추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확인하고 전하겠음.
- 김OO 위원 : 공공일자리 근로지원의 경우도 예산 소진으로 내년 지원이 불확실하다는 이야기가 있어 입주민의 사회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있지않을까 싶어 우려되기도 함.
- 이OO 위원 : 근로지원인 관련 사업의 경우 계속 진행되어 왔고, 내년에도 별다른 특이사항없이 진행될 것이라 생각함.

다. 추가 질의 및 의견없어 제1호 보고 의안에 대한 보고를 마침.

(결정 사항)

- 참석 위원 전원이 보고 안건 심의하고 그 결과에 동의함.

❑ 심의 안건

1. 제1호 2022년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

가. 2022년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세출 명세와 증감사유를 보고함.

1) 종사자 퇴사 등으로 인건비 예산 감액, 입주민 지원 및 서비스 안정화를 위해 기타인력(주거코치) 예산 증액 확대 편성하였으나 실질적인 구인의 어려움으로 집행하지 못 하여 잔액 발생함.

2) 입주민 지원 및 업무 수행을 위한 기기 보완, 비품 구입은 서울시 승인 하에 진행함.

3) 업무추진비 감액, 운영비 증액, 사업비 감액함. 사업비의 경우 코로나19 감염 확산 등의 사유로 사업 진행이 어려움에 따라 감액 조정이 불가피함.

4) 희망이음(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적극 활용하여 집행 및 정산, 보고 등의 업무를 원활히 하고자 함.

나. 위원 질의 및 의견

- 서OO 위원 : 희망이음 시스템 사용 범위. 회계만 사용하는지, 전 영역을 모두 사용할 예정인지 질의함.
- 김OO 위원장 : 회계 업무의 경우 서울시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과 희망이음을 병행하여 사용, 보고하며, 그룹웨어 우선 사용 후 점차 활용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 임OO 위원 : 추가경정은 집행금액을 정산하고 심의한 후 확정하여야 하는데, 이에 따라 제4차 추가경정(안)이 수립된 것인지, 제3차 추가경정 집행과 제4차 추가경정 집행 시점이 부합하고 집행금액이 명확한지 확인을 필요로 함. - 서OO 위원 : 회계연도 시작 5일 전까지 사업계획 및 예산을 제출하여야 함. 이와 관련한 공지사항을 정리하여 전송하겠음. 법인 이사회에 상정되는 사업계획과 예산을 서면으로 보완하여 제출하여 확인하였으면 함. - 김OO 위원장 : 제3차 추가경정을 제4차 추가경정안에 반영함. 12/5까지 집행한 내용에 기반하여 예산을 확정함. 본 회의에서 개략적인 2023년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보고하려 하였으나 상황이 여의치않아 안으로 상정하지 못 함. 차기년 운영위원회의에서 2022년 정산 보고, 2023년 사업계획 내용을 보고할 예정이며, 2023년 사업계획과 예산 내용을 보완자료로 제출하여 서면 의견·동의 회신을 받도록 하겠음. 다. 추가 질의 및 의견없어 제1호 심의 의안에 대한 보고를 마침. **(결정 사항)** - 2023년 사업계획 및 예산 내용을 보완자료로 제출, 참석 위원 전원이 안건에 대한 설명을 듣고, 서면 의견·동의 회신하여 제4차 추가경정예산을 승인하기로 함. **❑ 기타** **1. 위촉장 수여** 신규 운영위원(종사자 대표) 김혜정 위원에게 위촉장 수여함. **2. 운영위원 소감 및 제언** - 서OO 위원 : 예전의 경우 프리웰지원주택센터 운영위원회 구성 및 회의 진행, 보고가 잘되지 않아 우려가 되었으나 새로 센터장님 취임한 후 운영위원회 구성 및 진행이 원활해지며 활기를 띄고 있음.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니나 차기년에 구청 내 인사 이동이 있을 수 있어 혹 후임자가 오게되면 인계를 잘하여 운영위원회의에 적극 참여하도록 독려하겠음. - 김OO 위원 : 종사자 대표로서 처음 참석하는 운영위원회의라 낯설기도 하고 많이 긴장되었는데 반갑게 맞아주시어 감사함. 부족하지만 차기년에도 회의에 적극 참석하고 의견을 내어 힘을 보태겠음. - 이OO숙 위원 : 새로 운영위원님이 오셔서 반갑고, 한해동안 운영위원회의에 참석하며 여러 사람과 의견을 나누고 소통할 수 있어 좋았음. 서로 간의 소통이 가장 중요한데 차기년에도 서로 잘 소통하며 적극 참여하였으면 함. - 임OO 위원 : 모두 반갑고 고생 많으셨음. - 김OO 위원장 : 한해동안 운영위원회의에 참석하여 함께 해주셨던 운영위원님들에게 감사하며, 차기년에도 회의에 적극 참여해주시기 바라며 함께 소통하는 시간을 만들어 갔으면 함. **❑ 폐회** 위원장이 2022년 제4차 프리웰지원주택센터 정기 운영위원회 폐회를 선언(16:30)함.
정책건의	- 탈시설 입주민 활동지원서비스 120시간 지원이 종료되며 입주민 활동지원시간 부족, 지원인력 부재에 따른 서비스 불안정이 지속됨에 따라 입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원활한 생활 지원을 위

	하여 지자체의 정책 마련과 제도 상의 추가 지원방법 모색이 절실함.

상기와 같이 진행된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22. 12. 19.